

2017-2학기 사회봉사 연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학습지도 봉사활동

봉사활동 설명회: 2017.9.5.(화) 18:30~19:30 은누리홀
본 활동 신청자는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



1. 개요

우리대학 한국어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, 한국의 문화도 잘 알지 못 합니다.

여러분의 봉사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, 나아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2. 목적

가.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

나. 한국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학점이수

다.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충해소 및 문화교류

2. 주요내용

가. 봉사기관: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

나. 모집인원: 80명 모집

-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지도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

-사범대학, 한국어문학과, 중국중국어학과 재학생 우대

다. 봉사활동기간:

-주당 4시간 봉사 참여: 2017. 9. 11. ~ 11. 22. / 8주간 활동

-주당 3시간 봉사 참여: 2017. 9. 18. ~ 12. 15. / 13주간 활동

※봉사자의 시간표 공강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.

라. 봉사자 요건:

-매주 월~금요일에 주 2일을 봉사활동해야 함.

-오전 활동 가능 09:30~12:30

-오후 활동 가능 14:00~17:00

-위 활동 가능 시간 내에 2시간 이상 공강이 있는 자

-봉사에 참여하는 주 2일은 1일차가 오전 이면 2일차도 오전이어야 하며,

1일차가 오후 이면 2일차도 오후이어야 함.

마. 봉사활동 장소: 유학생서비스센터 내

바. 활동내용: 유학생 한국어 학습지도(읽기, 말하기, 쓰기) 1:1 학습지도

3. 수강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

- 가. 신청기간: 2017. 8. 30.(수) ~ 9. 1.(금) 선착순 80명
- 나. 신청방법: instar.jj.ac.kr -> 학사관리 -> 사회봉사교과목 -> 교과목신청
- 다. **수강자 활동 설명회: 2017.9.5.(화)18:30~19:30 온누리 홀**
- 라. 활동시작: **9월 11일부터**
- 마. 유학생 국가: 총 22개 국가(중국, 몽골, 베트남 다수)

바. 이수시간 세부내역:

- 활동 설명회: 1시간-2017.9.5.(화) 18:30~19:30 온누리홀
- 사회봉사 소양교육: 2시간-2017.9.7.(목)~9.8.(금) 장소, 시간 차후 공지
- 사이버 소양교육: 4시간 인터넷 강의 수강(활동 중에 실시)
- 상담 및 보고서 작성: 1시간(활동 중에 실시)
- 봉사 활동: 32시간 총 40시간

문의: 국제교류원 유학생서비스센터 ☎063-220-4799

□2017-1학기 봉사활동 참여자 소감(요약 내용)

제가 맡게 되는 학생이 중국 유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전공에서 배운 중국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한편으로는 설레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중국인 봉사 친구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도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. (중간내용 생략)

사 많이 부족하지만 유학생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. 이 사회봉사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로의 문화,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이 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유 학생 한국 친구랑 같이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. 제가 올해 9월에 한국에 왔을 때 많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점도 많았고 저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 1대1 공부를 통해서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저의 한국어 멘토는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. 이 친구 열정적이고 성격도 매우 좋아서 이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많은 범위를 같이 공부했는데, 한국어, 한국사회의 예의, 한국영화, 한국음식, 한국어 시험내용 등 여러 분야로 공부했습니다. 이 한국친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. 예전에 모르던 것은 이제 알게 되었고 한국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한국에서 혼자도 익숙하게 잘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. 제 친구 김민*(문헌정보학과)에게 감사합니다.

친구와 말하기를 연습했는데, 덕분에 이제 말하기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. 전에 말하기를 잘 못해서 한국어 말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, 지금은 한국친구의 응원으로 어학당 말하기대회도 나가고 쓰기대회도 나가게 되었고 두 대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. 이렇게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된 건 한국친구 덕분입니다.